

국제 TV조선 뉴스7

## "빛 쏘여 당뇨병 고치는 원리 찾아내"

최승규 기자 | 등록 2013.10.21 08:05



기업이미지상승 VIP고객을 위한 선물  
당나귀젖으로 아토피를 치료한 사례?

[앵커]

한국인 과학자들이 빛으로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. 국내 토종 과학자로 하버드 의대 교수로 임용된 윤석현 교수 연구진이 주인공인데요. 당뇨병 치료와 함께 다양한 질병의 진단에도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.

최승규 기자입니다.

[리포트]

당뇨병을 빛을 쏘여 치료하는 원리가 발표됐습니다.

하버드 의대의 윤석현 교수를 비롯해 최명환, 최진우, 한세광 박사 등 한국인 과학자들이 주인공입니다. 원리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치료용 세포를 환자 몸 안에 이식해서 빛으로 활성화 시키는 겁니다.

먼저, 치료용 세포를 하이드로겔에 주입한 뒤 당뇨병에 걸린 실험용 쥐에게 성냥개비 크기로 이식했습니다.

그리고 이식한 하이드로겔에 광섬유로 빛을 비추자 치료용 세포들이 인슐린을 분비하면서 생쥐의 혈당치를 정상으로 돌려놓았습니다.

목처럼 말랑말랑한 투명물질인 하이드로겔이 빛을 치료용 세포에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.

연구진은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질병 진단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입증했습니다.

독성 중금속을 만나면 형광빛을 내는 세포를 하이드로겔에 넣는 방법으로 중금속 함량을 파악하는 것입니다.

이번 연구 결과는 오늘 자 '네이처 포토닉스' 인터넷판에 실렸습니다.

논문 책임자인 윤석현 교수는 KAIST 출신의 토종 과학자로 지난 2005년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하버드 의대 교수로 임용돼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.

TV조선 최승규입니다.

Copyrights © TV조선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[닫기](#)[인쇄하기](#)